

# 이재명 선대위, 고3·간호사 등 영입...청년층 잡기 박차

국민 직접 추천한 630명 중 뽑아 사회적 사업가·의사 등 포함 정책 자문·현장 목소리 전달 이 "한국 정치 참여 시기 너무 늦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암 투병을 계기로 뮤지컬 배우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한 황서운(39) (주)국피디와황배우 대표 등 5명을 선대위에 영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와 고교 3년생 정예람(19) 군, 기술기업 그린테크 이선우(50)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박승권(37)씨, 응급실 간호사 박성호(28)씨 등을 '국민추천 국가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2030세대 과학인재 4명에 이은 두 번째 인재영입이다. 이번에도 젊은 세대를 주로 영입함으로써 청년층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 정책 자문을 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영입은 온라인 '국민추천 국가인재'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은 630명 가운데 뽑은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정예람 학생"이라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참여가 매우 뒤늦은 시기에 시작된다. 아쉬움이 있었다"며 "유럽에서는 30대 장관도 나오고 40대

대통령도 나오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40세가 되기 전에는 아예 자격조차 안 준다"고 지적했다.

정예람 군은 내년 대학 입학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인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예산 추진단 등에서 청소년 복지·권리 등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황서운 대표는 뮤지컬배우 출신으로 2016년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팟캐스트로 암 투병기 등을 방송했고,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다.

박승권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장학생으로 의대에 진학, 노동자 건강권을 쟁기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선우 대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딛고 15년째 기술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박성호씨는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간호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이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 후보에게 빼 있는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선우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 다행인 것은 불수록 매력에 느껴진다는 점"이라며 "내면의 진솔함과 혁신적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승권씨는 "대통령 만들어드리겠다. 그럴테니 날로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예람 군은 "이번 대선은 제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라면서 "그런데 그 결정권을 쓰려고 보니 어떤 후보는 자꾸 과거를 말하는 것 같다. 정책도 비전도 없는 후보에게는 마음이 잘 안 간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인상이 있다. 특별장군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 힘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에 써달라"고 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추미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내년 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4곳 '청년 경쟁 선거구' 지정

민주당 '비전 실현을 위한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광주시 광역의원 20개 선거구 가운데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한다. 제6회 지방선거부터 민주당이 지정해온 여성 경쟁 선거구 4곳도 유지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광주에서 34.8%의 여성 공천율을 기록했다.

광주시당은 광역 비례대표도 1번에 여성 청년을 추천하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공천할 계획이다. 광역 비례대표 2번은 교육전문가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에 청년과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이 '청년 경쟁 선거구'로 지정된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청년 선거구'가 지정된 것은 광주가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지방선거 기획단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광주시당은 '광주의 미래와 함께하는 젊은

민주당'의 비전 실현을 위한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광주시 광역의원 20개 선거구 가운데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한다. 제6회 지방선거부터 민주당이 지정해온 여성 경쟁 선거구 4곳도 유지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광주에서 34.8%의 여성 공천율을 기록했다.

광주시당은 광역 비례대표도 1번에 여성 청년을 추천하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공천할 계획이다. 광역 비례대표 2번은 교육전문가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에 청년과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이며,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도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내년 지방선거 방향으로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 청년 및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선정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2030 청년을 전면 포진시키면서 민주당 쇄신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당 지방선거 기획단장인 윤영덕 의원은 "이재명표 혁신 공천의 시작"이라며 "여성 공천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청년 공천율도 30%를 달성해 정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 4등급·전남도의회 2등급

권익위 올 청렴도 평가

광주 과기원 2년 연속 5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방의회,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1-5등급으로 매겨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의회는 4등급, 전남도의회는 2등급을 기록해 허비가 갈렸다. 평가 대상 지역 기초의회 중에선 순천시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전국 16개 국공립 대학에선 광주과학기술원이 유일하게 5등급을 얻어 청렴도가 가장 취약한 국공립대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얻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부문에서 각각 4등급, 3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지난해 평가 때와 같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고 전남도와 함께 2등급을 기록한

곳은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충북도의회 등 6곳이었다. 전남도의회의 의정활동 부문 청렴도는 2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의회운영 부문 청렴도는 1단계 올라선 1등급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 지역 기초의회들은 모두 3등급 이하였다. 광주 남구의회만 3등급이었으며 광주 서구의회와 나주시의회는 4등급, 순천시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지역 소재 국공립대 중에선 전남대가 1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이어 5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5등급은 광주과학기술원이 유일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계약부문(3등급)을 제외한 연구, 행정, 조직문화 제도 부문 청렴도에서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지난해보다 1단계 올랐지만 4등급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광역 17개·기초 65개 등 82개 지방의회, 16개 국공립대(4개 과학기술원 포함), 13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5.4%·윤석열 33.3%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알앤씨치 42.3%·이 38.4%

다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엇박자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7%, 유선 13%)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

도는 35.4%를 기록해 윤 후보(33.3%)를 오차범위 내인 2.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 3.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1%였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부각된 때였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를 묻자 이재명 후보가 45.5%, 윤석열 후보 43.8%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후보 0.6%, 심상정 후보 0.3% 순이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영향을 준다'가 60.4%,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38.1%였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씨치가 MBN·매일경제 의

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무선 100% 자동응답)를 한 결과, 윤 후보는 42.3%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후보(38.4%)를 3.9%포인트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4%, 정의당 심상정 후보 2.9%였다.

지난 한달간 윤 후보는 하락세, 이 후보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8일 조사에서 윤 후보는 47.7%, 이 후보는 33.3%로 14.4%포인트 격차가 났으나, 12월 2일 조사에서 윤 후보는 43.3%, 이 후보는 37.9%로 격차가 5.4%포인트 줄어 들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